



미 증시, 대내외 불안에도 반등에 성공

미국 증시 리뷰

7 일(화) 미국 증시는 타겟(-2.3%) 등 대형 소매업체의 주가 급락, 세계은행의 침체 경고 등으로 장초반 하락세를 보였으나, 인플레이션 불안 일정부분 선반영 속 기술적 및 저가 매수세 유입, 미 10 년물 금리 하락 등에 힘입어 반등에 성공(다우 +0.80%, S&P500 +0.95%, 나스닥 +0.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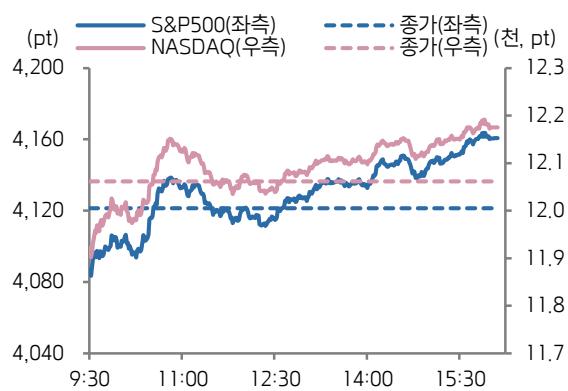
장 초반 타겟이 재고 축소를 위한 조치로 제품가격 인하, 주문 축소 등을 단행하며 2 분기 영업이익 하향 전망했다는 점, 세계은행이 스태그플레이션을 경고하며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기존 4.1%에서 2.9%로 하향 조정했다는 점 등으로 하락 출발. 그러나 10 일 발표될 미국 소비자물가지수를 앞두고, 연준의 기존 금리인상 경로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며 상승 전환한 채로 마감. 전일 3%를 상회했던 미 국채 10 년물 금리가 하락한 점 역시 나스닥을 비롯한 지수 반등에 기여.

업종별로 타겟을 비롯한 아마존(-1.43%), 월마트(-1.20%) 등 일부 대형 소매업체의 하락으로 경기소비재(-0.4%)를 제외한 에너지(+3.1%), 산업재(+1.4%), 헬스케어(+1.3%) 등 전업종이 상승

미국 4 월 무역적자는 전월대비 19.1% 감소한 871 억 달러(예상치 894 억달러, 전월치 1,077 억 달러)로 발표되며 적자폭 축소. 무역적자 확대는 미국 1 분기 경제성장을 하락을 주도한 주요 원인으로 2 분기 경제성장을 개선 기대감이 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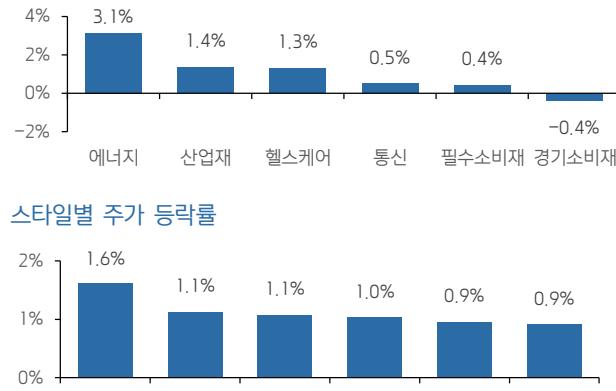
옐런 재무장관은 상원 청문회에서 인플레이션이 40 년만에 최고 수준이며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 인플레이션이 정책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힘. 또한 전일 중국 상하이, 베이징의 코로나 19 방역 규제 완화로 인한 수요 기대감으로 국제유가는 상승하며 인플레이션 우려를 높임.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S&P500	4,160.68	+0.95%	USD/KRW	1,257.77	+0.31%
NASDAQ	12,175.23	+0.94%	달러 지수	102.34	-0.1%
다우	33,180.14	+0.8%	EUR/USD	1.07	+0.03%
VIX	24.02	-4.19%	USD/CNH	6.67	-0.03%
러셀 2000	1,919.56	+1.57%	USD/JPY	132.63	+0.03%
필라. 반도체	3,092.97	+0.99%	채권시장		
다우 운송	14,573.52	+0.13%	국고채 3년	3.235	+11bp
유럽, ETFs			국고채 10년	3.542	+13.5bp
Eurostoxx50	3,806.74	-0.83%	미국 국채 2년	2.727	+0bp
MSCI 전세계 지수	654.61	+0.38%	미국 국채 10년	2.974	-6.6bp
MSCI DM 지수	2,805.33	+0.56%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1,061.02	-0.96%	WTI	119.41	+0.77%
MSCI 한국 ETF	66.50	-0.58%	금	1852.1	+0.46%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check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58%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0.31%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19%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54.6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미국 증시 반등 속 전거래일 과매도 인식에 따른 저점 매수세 유입 가능성
2. 최근 낙폭이 커던 2차전지, 반도체, 인터넷 등 성장 스타일 업종들의 주가 반등 여부
3. 장중 중국 증시 관련 뉴스플로우 및 주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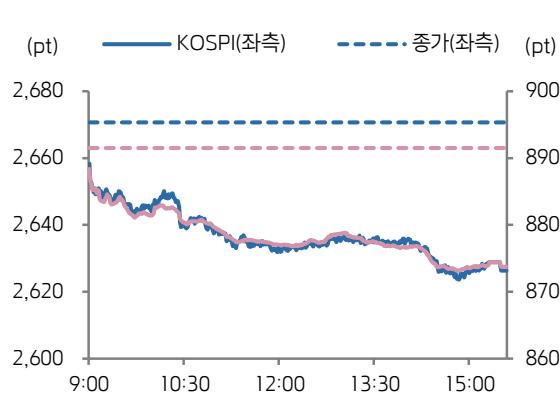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뉴스플로우 상 시장 불안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서 파생된 경기 침체 우려도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7 일 세계은행이 미국(3.7%→2.5%) 등 2022 년 전세계(4.1%→2.9%) 경제성장을 전망치를 지난 1 월 전망에 비해 큰 폭 하향 조정한 배경을 살펴보면 지정학적 긴장, 비용 상승, 1970 년대식의 스태그플레이션 장기화 가능성 등이 주된 동인으로 작용. 애틀랜타 연은에서 추정한 2 분기 성장을 전망치 역시 지난 1 일 1.3%에서 0.9%로 하향조정된 것도 최근까지 발표된 경제 지표들이 예상보다 취약했다는 점에서 기인. 또 대형 유통업체 타겟(-2.3%)이 과잉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격 할인이 불가피하며, 그 과정에서 영업 마진이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 했듯이, 이미 수요단에서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실질 구매력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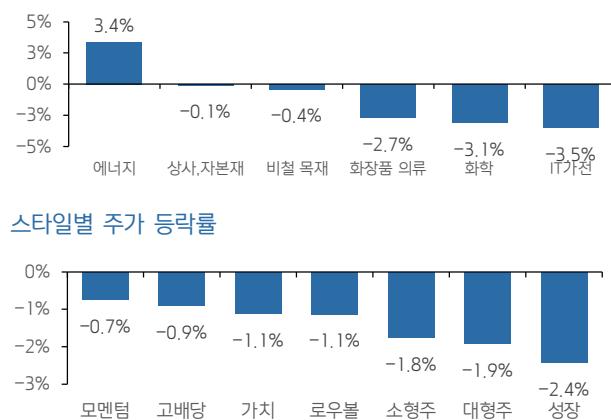
이처럼 경제 관점에서 악재성 재료들이 우위에 있는 상황이나, 전거래일 미국 증시가 악재로 점철된 환경 속에서 반등했다는 점에서 유추해볼 수 있듯이,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일정부분 내성이 생기면서 증시 바닥을 다져가고 있는 것으로 보임. 한국, 미국 등 주요국 증시가 6 월 이후 부진한 주가흐름을 연출했지만, 연 저점을 깨지고 않고 있다는 점도 같은 맥락에서 바라볼 필요. 물론 지수 상단이 유의미하게 열리기 위해선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는 가시적인 신호가 등장해야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이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당분간 증시는 박스권 장세(현재 하단 부근에 위치해있는 것으로 추정)에서 저점을 점진적으로 높여가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금일 국내 증시도 세계은행의 스태그플레이션 경고 등 매크로상 불확실성에도, 증시 바닥권 인식 속 미국 증시 강세 영향에 힘입어 2 차전지, 반도체, 인터넷 등 전거래일 낙폭이 커던 종목군을 중심으로 반등에 나설 전망. 또 엘런 재무장관이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용인하기 힘든 수준이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세출 법안에 포함된 처방약, 신재생 에너지 정책 등이 비용을 낮출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점도 장중 국내 증시에서 인플레이션 불안심리를 일정부분 해소시켜줄 것으로 예상.

KOSPI & KOSDAQ 일중 차트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자료: Bloomberg, Quant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시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징계 됩니다.	